

# 기초선거 무공천 ... 與 급제동·野는 눈치보기

## 새누리, 최고위원들 반발로 확정 못지어 민주당, 지방선거 영향줄까 소극적 태도

새누리당 4·2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가 정치쇄신 방안으로 내놓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無)공천 방침에 당내 일부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가 전날 결정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걸쳐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지역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 다음주 최

고위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는 경기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마 등 기초의원 3곳에서 펼쳐진다.

공천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 때문에 무공천 방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심위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이지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공심위 역할 범위를 넘어서다"면서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황우여 대표는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우택 최고위원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만 야당과 협의 없이 해버리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는 현실이므로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혁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이번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할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추이를 살펴보는 등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초의원 등에 대한 무공천 방침은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현일 뿐"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은 법 개정을 위한 여·야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당 무공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설불리 동조했다는 내부 반발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속단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정당 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난 지방자치제의 혼란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여성계 반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 입장에서 정당 무공천이 실행될 경우 비례대표 진출과 여성 가산점 활용이 불가능해져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힘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청빈한 삶... 미술사에 '조토 블루'를 남기다



(22) 성 프란치스코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고자 했던 인물인 성 프란치스코(1182~1226)의 생애를 소설로 펴냈다. 소설 '성 프란치스코'에서 프란치스코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버리지 못함을 아파했고, '성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인간으로 묘사된다.

최근 제266대 로마가톨릭 교황에 선출된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청빈과 박애를 실천한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즉위명으로 정하면서 성인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교황은 즉위를 계기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상실해버린 청빈의 마음, 전쟁으로 인해 멀어져간 평화의 종소리를 영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싶었을 것 같다. 소설로도, 영화로도 남겨졌던 성 프란치스코의 일대기는 르네상스 미술의 새 장을 연 조토 디 본도네(1267~1337)에 의해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을 장식하는 28점의 프레스코화 연작으로 완성된다. 짧은 시절 한때 탕아였던 프란



조토 작 '새들에게 설교'

치스코는 1206년 회심하여 일체의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결심한다. 청빈생활을 일관하면서 미천하고 병든 자들에게 봉사하며 동물들과도 대화했다. 그 기적의 에피소드를 그린 것이 작품 '새들에게 설교'다. 프란치스코가 설교하는 동안 새들은 날개짓을 하며 그의 말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마치 말귀를 알아듣는 듯하다. 한 수도사도 길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다.

특히 푸른색 배경으로 드러난 공간감은 미술사적으로도 의미 깊다. 조토는 원근을 가능할 수 없었던 중세미술의 금칠 배경을 걷어내고 푸른색으로 화면을 채우면서 입체감 표현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토가 사 용한 청색은 후대 화가들에게 '조토 블루'라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영감을 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1회 수소 충전 650km 주행 ... 광주, 차세대 친환경차의 중심으로

### 수소자동차 보급 지자체 선정

### 친환경 자동차 산업 선점

#### 연료 전지 플랫폼



#### 수소 연료전지와 내연기관 비교

내연기관차	연료전지차
엔진, 트랜스미션, 동력기관	연료전지, 모터
화석연료	수소·비화석연료
20~30%	효율 50~60%
CO <sub>2</sub> , HC, CO, NOx, SOx	배기물질 수증기·무공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게 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의 2013년 저공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선정돼 수소충전소 1곳과 수소연료전지차 5대를 지원받게 됐다. 소요 예산은 36억원으로 올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차 투싼ix 5대(6억원)가 배치된다. 수소충전소는 진곡산단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수소차 5대는 일



완성차 62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차 광주출하사무소에서 완성차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는 평동산업단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단 공공 업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소차는 1회 수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최대 650km에 이르는 등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주행거리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친환경차의 중심으로 떠오

르고 있다. 전기차는 1회 전기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100~200km 불과하다.

수소자동차는 차내에 장착된 수소탱크의 수소와 대기중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고 모터를 돌리는 원리이며, 물 외에는 유해물질이 배출되

지 않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꼽힌다.

다만,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다. 현대차의 투싼ix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소차에 해당하지만, 대당 가격이 1억원을 웃돈다.

한편, 시는 이번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의 유치를 계기로 수소 에너지 시범도시 기반 조성,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개최, 광주~대구 수소고속도로사업(수소충전소 5곳 설치)과 연계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빛의만경

- 김중두



갈수록 태산

2012년 뉴스저작권보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 뉴스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뉴스 저작물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언론 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화, 음반, 그림, 사진 등에 저작권이 있듯이 뉴스도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창작 노력이 배어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 저작권 보호와 합법 이용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2013 뉴스저작권보호 광고·표어 공모전**

- 응모분야 : 동영상UCC, 신문광고, 표어
- 응모일정 : 2013. 3. 28(목) ~ 5. 9(목)
- 시상내역 : 총상금 3,800만원(대상 500만원)
- 홈페이지 : www.newskorea.or.kr/contest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내최초, 국내최대 종합 뉴스 서비스  
**news**korea